****

**▶ 2009 토니 어워즈, 2009 올리비에 어워즈, 2010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0 동아연극상 등  
국내외 권위 있는 시상식이 모두 인정한 수작!**

**▶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우아한 네 명의 배우들이 품격 있게(?) 망가진다.**

**▶ 개성과 실력으로 중무장한 배우들이 교양이라는 가면 안에 가려져 있던 우리 모두의 민낯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까발린다!**

**▶ 프로레슬링 혼성 태그매치를 관전하는 듯한 긴장과 재미를 선사하기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극장!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X 연극 대학살의 신**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2017 연극 <대학살의 신>, 다시 한번 국내 연극계를 뒤흔든다!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연극 <대학살의 신>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다. (4월 18일 티켓 오픈)

2010, 2011년 두 차례 공연되었던 연극 <대학살의 신>은 ‘***90분간의 불꽃 튀는 연기, 독설과 냉소의 짜릿함 – 공연예술 전문가 정재왈’, ‘심플한 무대, 4명의 등장인물. 최고의 웃음과 페이소스가 깊은 맛을 전달한다. –인터파크 sy74\*\*’, ‘묘한 생동감이 있는 작품. 보는 내내 푹 빠져서 보게 된다. –인터파크 edene\*\*’***등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다.

2017 연극 <대학살의 신>은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배우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이 출연하고,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연극 <레드>의 연출이자, 뮤지컬 <원스>, <시카고>, 연극 <피카소의 여인들> 등의 국내 연출로 다양한 작품들에서 폭넓은 역량을 발휘해 온 김태훈이 연출을 맡는다. 또한, 연극 <보도지침>,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을 통해 한국 공연계의 블루칩이 된 작가 겸 연출 오세혁이 윤색과 드라마트루그로 참여, 한층 더 젊어지고 참신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토니 어워즈, 올리비에 어워즈, 대한민국 연극대상, 동아연극상 등  
권위 있는 시상식 ALL KILL! 영화계까지 사로잡은 수작!**

11살 두 소년이 놀이터에서 싸우다 한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부부가 모였다. 고상하게 시작되었던 이들의 만남은 유치찬란한 설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삿대질, 물건 던지기, 눈물 섞인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한 마디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것이다. 두 부부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한 편의 시트콤을 보듯 폭소와 함께 바라보던 관객들은 어느덧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민낯 그리고 교양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었던 인간 근본의 가식, 위선, 유치, 치사, 허상을 말이다.

연극 <대학살의 신>은 지식인의 허상을 유쾌하고 통렬하게 꼬집은 연극 <아트>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토니 어워즈(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여우주연상), 올리비에 어워즈(최우수 코미디상) 등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의 상을 거머쥐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10년 국내 초연된 연극 <대학살의 신>은 대한민국 대표 시상식 대한민국 연극대상(대상, 연출상, 여우주연상)과 동아연극상(여우주연상) 등 국내 권위 있는 연극제 주요부문 상을 모두 휩쓸며 2010년 최대 화제작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 작품은 2011년에 영화 <피아니스트>로 제 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바 있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연출을 맡아 조디 포스터, 케이트 윈슬렛 등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함께하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개성과 실력으로 중무장한 최고의 배우들이 펼치는 환상의 연기 호흡**

뮤지컬 1세대 스타이자, 관록의 연기력으로 대한민국 관객 모두의 사랑을 받는 배우 남경주와 최정원이 알렝과 아네뜨 부부를 맡았다. 배우 **남경주**는 ”연극 무대가 그리웠다.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로서 연기의 깊이를 다지고 싶다.” 며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오르는 소감을 전했고, 배우 **최정원**은 “마음 속으로 언제나 연극을 갈망하고 있었다. 꼭 출연하고 싶었던 작품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회를 전했다.약 20여 편의 작품에서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그들인 만큼 연극 <대학살의 신>에서 찰떡 궁합의 정점을 선보일 것이다.

한편, 스크린, 브라운관, 무대를 넘나들며 전세대의 사랑을 받는 배우 **송일국**이 미셸 역을 맡아 그 동안 보여주었던 진중하고 선 굵은 연기를 탈피하여 파격 변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소극장 무대에 꼭 한번 서보고 싶었다.이번 기회를 통해서 송일국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는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탄탄한 연기 내공을 지닌 배우 **이지하**가 미셸의 아내, 베로니끄를 맡아 함께 호흡한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리얼한 상황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텍스트와 시니컬한 코믹함에 매료되었다. 출연 제안이 왔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며 소감을 전했다.

한 치의 기울어짐 없는 팽팽한 긴장감의 설전부터 몸을 사리지 않는 육탄전까지!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은 무대 전환도, 등·퇴장도 없는 90분의 공연을 오로지 환상의 연기 호흡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왜 ‘대학살의 신’ 인가?**

‘대학살(Carnage)’이라는 살벌하고 섬뜩한 단어가 코미디 연극의 제목으로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극에서 아이들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두 부부는 대화를 거듭할수록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고, 끝내 ‘대학살의 신’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처참한 형국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고상한 지성인인 척 교양과 예절이라는 가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했던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살의 신>이라는 제목을 통해 인간의 위선을 조롱하고 있다. 또한 ‘대학살’은 아프리카 다르푸르 유혈사태처럼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등 우리 사회의 전반을 넘어 삶의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대학살의 신’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폭력성 같은 파괴적인 욕망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2017 연극 <대학살의 신> 공연 개요**

* **공연일시 :** 2017년 6월 24일 (토) ~ 7월 23일 (일)
* **공연장소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공연시간 :** 화-금 8시 | 토-일 2시, 6시 | 월 공연 없음
* **티켓가격 :** 지정석 60,000원 | 3층 자유석 40,000원
* **출연배우 :** 남경주, 최정원, 이지하, 송일국
* **극본 :** 야스미나 레자 (Yasmina Reza)
* **스태프 :** 번역 임수현 | 윤색·드라마트루그 오세혁 | 연출 김태훈 | 무대·의상디자인 황지영 | 조명디자인 민선홍 | 분장디자인 백지영 | 음향디자인 지승준 | 소품디자인 최혜진 | 조연출 도현태
* **러닝타임:** 90분 (인터미션 없음)
* **관람등급:** 중학생 이상 관람가
* **제작:** ㈜ 신시컴퍼니

**연극 <대학살의 신> 홍보 담당**

박지현 010.8653.0578 / 070.4619.2824 / [jhpark@iseensee.com](mailto:jhpark@iseensee.com)

장유진 010.5149.0806 / 070.4619.2812 / [jyj@iseensee.com](mailto:jyj@iseensee.com)

웹하드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seensee1 / 비밀번호: 1234 / 연극 <대학살의 신> 폴더

**목 차**

1. **연극 <대학살의 신>에 대하여 ……………………….…………………….….…….…. 7**

* 연극 <아트>의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블랙 코미디
*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을 통해 위선과 가식으로 뒤범벅된 인간의 민낯을 까발리다!
* 완벽한 구성의 텍스트와 배우들의 에너지로 살아 숨쉬는 무대

1. **연극 <대학살의 신>의 역사 ………………………………………………….….…….…. 8**

* 웨스트엔드 &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
* 한국 공연 역사

1. **배우 및 캐릭터 소개 ………………………………………………….…….………………. 10**

* 알렝 役 남경주
* 아네뜨 役 최정원
* 미셸 役 송일국
* 베로니끄 役 이지하

1. **첨부 내용 ……………………………………………………………………….……………… 14**

* 작가 소개 - 야스미나 레자 (Yasmina Reza, 1959~)
* 시놉시스
* 언론 리뷰

1. **연극 <대학살의 신> 에 대하여**

* **연극 <아트>의 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블랙 코미디**

연극 <대학살의 신>의 작가 야스미나 레자는 우리에게 연극 <아트>로 친숙한 작가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림을 구입한 남자와 집에 찾아온 두 명의 절친, 세 친구의 친분이 무색하도록 벌이는 피 튀기는 설전. 이 에피소드를 통해 야스미나 레자는 지식인의 허상을 비웃으며 스노비즘(snobbism)을 풍자하고, 부조리한 사회와의 타협을 유쾌한 방식으로 꼬집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극 <대학살의 신>을 통해 부유함, 고학력, 충만한 자신감, 품위, 고급스러움으로 포장된 중산층과 지성인의 이중성에 대하여 전작 <아트>보다도 더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고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을 통해 위선과 가식으로 뒤범벅된 인간의 민낯을 까발리다!**

11살 두 소년이 놀이터에서 벌인 몸싸움으로 한 소년의 이빨 두 개가 부려졌다. 연극 <대학살의 신>은 때린 소년의 부모인 알렝과 아네뜨가 맞은 소년의 부모인 베로니끄와 미셸의 집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녀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인 두 부부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 중산층 가정의 부부답게 고상하고 예의 바르게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대화를 거듭할수록 유치찬란한 설전으로 변질된다. 그들의 설전은 가해자 부부와 피해자 부부의 대립에서 엉뚱하게도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종국에는 서로 삿대질과 막말을 내뱉고 물건을 내던지는, 눈물로 뒤섞인 격렬한 육탄전으로 치닫게 된다.

변호사이지만 부도덕한 제약회사의 편에 서는 알렝, 고상한 척 하지만 중압감에 못 이겨 남의 집 거실에 구토를 하는 아네뜨, 평화주의자로 보이지만 아홉살 딸의 애완동물인 햄스터를 길거리에 몰래 내다버린 미셸, 아프리카의 모든 만행과 살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꿈꾸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억누르고 조율하려 들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 베로니끄까지.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모순과 이중성으로 가득하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버린 두 부부의 에피소드 그리고 대화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폭소와 함께 바라보던 관객들은 어느덧 무대 위 두 부부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교양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었던, 인간이라면 모두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치찬란함, 폭력성, 위선과 가식 등을 말이다.

* **완벽한 구성의 텍스트와 배우들의 에너지로 살아 숨쉬는 무대**

90분 가량 진행되는 이 연극의 무대는 매우 심플하다. 한 중산층 가정 거실의 소파, 예술 서적들, 꽃 등 최소한의 소품들이 전부다. 무대 전환도, 배우들의 등·퇴장도 거의 없다. 철저히 주고 받는 대사로 가득하지만 한 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다. 연극 <대학살의 신>은 촘촘한 구성의 텍스트와 통쾌하게 밀어붙이는 배우들의 에너지가 공연 그 자체가 되는 작품이다.

<대학살의 신>은 마치 어려운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낸 사회심리학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을 준다. 야스미나 레자의 작품들이 주로 그러하듯 이 작품은 인물들의 심리, 인물 간의 관계, 작은 단위의 집단(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섬세하고 위트 있는 코미디로 풀어냈다. 이렇듯 완벽하게 짜인 현실적인 텍스트는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핑퐁처럼 이어지는 대사들은 실력파 배우들의 입을 통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팽팽한 설전이 된다. 순간 순간 동반되는 배우들의 살아 숨쉬는 표정과 몸짓들은 극적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완벽한 몰입을 만들어낸다. 관객들은 배우들의 몸에서 터져 나오는 섬세하고도 신랄한 연기를 통해 오로지 연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1. **연극 <대학살의 신>의 역사**

* **웨스트엔드 &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

연극 <대학살의 신>은 2008년 3월 25일 런던 웨스트엔드의 윈드햄극장(Wyndham’s Theatre)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2009년 올리비에 어워즈에서 최우수 코미디상을 수상했다. 2009년 3월,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연극 <대학살의 신>은 1000석 규모의 버나드 B.제이콥스 극장(Bernard B. Jacobs Theater)에서 450회가 넘는 공연을 지속하면서도 관객들의 열기가 식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0년 6월까지 약 1년 간 공연되었다. 몇 주 만에 막을 내리는 뮤지컬과 연극들이 넘쳐나는 치열한 브로드웨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에서의 대중적인 성공 이외에도 권위 있는 일간지에서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2009년 토니 어워즈 연극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 연출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 3개 부문의 상을 휩쓰는 영예를 얻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 **한국 공연 역사**

**#1. 2010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낯선 초연작, 국내 연극계 최고 화제작이 되다!**

2010년, 국내 초연된 연극 <대학살의 신>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연출가 한태숙이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낯선 브로드웨이 최신작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지일, 서주희, 김세동, 오지혜 네 배우의 앙상블이 격렬한 대결 심리를 잘 드러냈다!’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10년 대한민국 대표 시상식 대한민국 연극대상(대상, 연출상, 여우주연상)과 동아연극상(여우주연상) 등 최고 권위의 연극상 주요부문을 수상하며 2010년 국내 연극계 최대 화제작으로 남았다.

**#2. 2011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탄탄한 호흡과 섬세한 집중도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은 앵콜 공연!**

국내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연극 <대학살의 신>은 그 다음해인 2011년 앵콜 공연되었다. 초연에 이어 한태숙이 연출을 맡았고, 초연 멤버인 박지일, 서주희가 초연보다 더 밀도 있는 호흡을 선보이고 이대연, 이연규가 새롭게 합류하며 극에 신선함을 더했다. 초연에 비해 작아진 무대는 네 명의 배우가 끊임없이 치고 받는 대화의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고 섬세하게 관객에게 전달하며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관객들은 연극계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이 선사하는 긴장감 넘치는 연기력과 파워풀한 에너지로 가득한 90분을 흥미진진하게 관망하며, 나 자신과 이 사회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1. **배우 및 캐릭터 소개**

* **까칠한 속물 변호사, 알렝 役 남경주**

연극 무대가 그리웠습니다. 연극으로 공연 데뷔를 했었기에 저에게 연극 무대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화려한 것들로 수식하지 않고, 온전히 배우들의 호흡과 밀도로 채워나가야 하는 연극 무대에 서며 배우로서 다시 한번 연기의 깊이를 다지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작품성으로 소문이 자자한 <대학살의 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관객을 웃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기하기 보다는 진짜 그 인물이 되어 상황 속에 녹아들어야만 진정한 코미디가 나옵니다. 남경주만의 방식대로 대본을 분석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저만의 알렝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4명의 배우들의 시너지와 앙상블, 그리고 불꽃 튀는 연기 대결 기대해 주세요!

* **프로필**

**[뮤지컬]** 오!캐롤/ 맘마미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카지/ 위키드/ 넥스트 투 노멀/ 브로드웨이 42번가/ 키스 미 케이트/ 시카고/ 벽을 뚫는 남자/ 에비타/ 아이 러브 유/ 크레이지 포 유/ 왕과 나/ Sing in the Rain/ 아가씨와 건달들/ 포비든 플래닛/ 갬블러/ 틱틱붐!/ 렌트/ 듀엣/ 더 라이프/ 그리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소리도둑/ 페퍼민트/ 사랑은 비를 타고/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신비의 거울 속으로/ 시집 가는 날/ 달빛 나그네/ 춘향전

**[콘서트]** 국립 발레단과 함께하는 <남경주의 해설이 있는 발레>/ 한낮의 휴 콘서트/ joy of christmas 콘서트/ 11시 콘서트/ 남경주의 드림콘서트/ All That Musical/ 남경주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MBC 댄싱 위드더 스타 심사위원

**[앨범]** 42ND SUMMER PLAY/ In My Dream/ One Step   
**[수상]** 2009 제 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올해의 스타상/ 2006 제 1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인기스타상/ 1997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1995~1997, 2003~2005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 인기스타상 6회 수상/ 1997 제 3회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 남우주연상/ 1995 제31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 **캐릭터 소개**

**알렝 (Alain Reille)** - 부당한 권력과 부를 갖춘 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전형적인 속물 변호사. 초지일관 까칠한 면모를 보이며, 아이들의 싸움 정도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한다. 휴대 전화를 손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을 정도로 워커 홀릭인 반면,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 **지킬 앤 하이드, 아네뜨 役 최정원**

정말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언제나 연극을 갈망하고 있었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객의 입장으로 <대학살의 신> 공연도 정말 재미있게 보았고, 꼭 한번 무대에 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에피소드 속에서 교양과 우아를 모두 내던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고, 블랙 코미디의 진수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뮤지컬 무대도 그러하겠지만, 연극 무대에서는 더욱 강한 몰입도로 디테일하고, 리얼한 연기를 선보여야 하죠. 그렇기에 <대학살의 신>은 배우 최정원에게 다시 한번 더 담금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할 것 같습니다. 관객 분들과 가까이 호흡하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프로필**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고스트/ 유린타운/ 아가사/ 라카지/ 오! 캐롤/ 안녕 프란체스카/ 소리도둑/ 프로듀서스/ 지킬앤하이드/ 갬블러/ 틱틱붐/ 캬바레/ 키스미, 케이트/ 듀엣/ 렌트/ 브로드웨이 42번가/ 사랑은 비를 타고/ 그리스 외   
**[연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 버자이너 모놀로그/ 피아프

**[수상]**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2014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 2010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2001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1997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199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 조연상/ 1995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

* **캐릭터 소개**

**아네트 (Annette Reille)** – 외적으로는 럭셔리하고 교양 있는 중산층 가정의 여성. 본인을 자산 관리사라 소개하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눌려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남편(알렝)의 전화에 진절머리가 난다. “저희는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상냥하고 고상한 척 하지만 상황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집 거실에 구토를 하고, 술에 만취하여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등 본색을 드러낸다.

* **평화주의자의 가면을 쓴 남자, 미셸 役 송일국**

****

두 번의 무대에 오르면서 진정한 배우 예술의 장르인 무대 예술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반성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관객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오롯이 배우의 연기력으로 채워 나가는 소극장 무대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대학살의 신>을 통해 관객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연기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미디 연극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 송일국은 무겁고 선이 굵은 역할들로 각인이 되어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송일국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진짜 제 모습에 닿아있는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프로필**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연극]** 나는 너다  
**[영화]** 타투/ 현기증/ 작업의 정석/ 레드 아이  
**[드라마]** 장영실/ 발효가족/ 강력반/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바람의 나라/ 로비스트/ 주몽/ 바람꽃/ 해신/ 애정의 조건/ 물꽃마을 사람들/ 사막의 샘/ 보디가드/ 천년의 꿈/ TV소설 인생화보/ 장희빈/ 골목 안 사람들/ 거침없는 사랑 외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 생로병사의 비밀 100세 시대, 신인류의 조건–나레이션/ 희망로드 대장정/ MBC 스페셜 외   
**[수상]** 2016 KBS 연기대상 중편드라마부문 남자 우수상/ 2012 밝은사회클럽 세계평화봉사대상 연예인봉사부문/ 2011 제2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2009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어워즈 아시아 스타상/ 2008 KBS 연기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자상/ 2007 제41회 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07 제19회 한국프로듀서상 탤런트 부문/ 2006 MBC 연기대상 대상/ 2006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 2006 그리메상 최우수남자연기자상/ 2005 KBS 연기대상 인기상/ 2005 KBS 연기대상 남자 우수연기상/ 2002 KBS 연기대상 신인상

* **캐릭터 소개**

**미셸 (Michel Houllié)** - 자수성가한 생활용품 도매상으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공처가이자, 엄마와 끊임없이 통화하는 마마보이다. ‘좋은 게 좋은 거’ 라고 생각하는 평화주의자로서 끊임없이 알렝, 아네뜨, 베로니끄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아네뜨와 베로니끄가 아홉살 딸의 햄스터를 길거리에 내다버린 일에 대해 몰아세우자, 끝내 그동안 숨겨왔던 투박한 심성과 울분을 터뜨린다.

* **똑똑한 척 & 고상한 척 대마왕, 베로니끄 役 이지하**

<대학살의 신>의 초연 공연을 보며 일상 안에서 충분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리얼한 상황을 맛깔나게 표현하는 텍스트와 시니컬한 코믹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출연 제안이 왔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품과는 또 다른 색깔의 작품이라 더욱 설렙니다. 관객 분들이 무대 위의 배우들을 마음껏 비웃으면서도, 결국에는 작품 안에 동화될 수 있는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표현의 과장이 아닌, 진정성 있게 인물에 접근하여 그 이면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에서 오는 웃음을 찾아내고 싶어요. 게다가 이번 <대학살의 신>은 캐스팅부터 과감하고 흥미롭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다앙한 색깔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지 지켜봐 주세요!

* **프로필**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 잘자요 엄마/ 억울한 여자/ 그 봄, 한낮의 우울/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진들에게/ 미스 프랑스/ 이제는 애처가/ 그 집 여자/ 숲 속의 잠자는 옥희/ 과부들/ 버자이너 모놀로그/ 과학하는 마음 - 숲의 심연/ 연애희곡/ 휘가로의 결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바냐아저씨/ 락희맨쇼/ 억울한 여자/ 침향/ 바보각시/ 종로고양이/ 흉가에 볕들어라/ 파행/ 타임 플라이즈/ 파티/ 양파/ 수족관 가는 길/ 왕궁 식당의 최후/ 오레스테스/ 시련/ 달의 소리/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그린벤취/ 릴레이/ prIn-cesspari/ 바리공주 외   
**[영화]** 아가씨/ 찌라시: 위험한 소문/ 두레 소리/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김종욱 찾기  
**[수상]** 2015 제2회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수상/ 2008 골든티켓 연극 여우주연상/ 2008 제44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2005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수상

* **캐릭터 소개**

**베로니끄 (Véronique Houllié) –** 파트타임으로 서점에서 일하며 다르푸르 유혈사태에 대한 책 출간을 앞둔 아마추어 작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행과 살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꿈꾼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억누르고 조율하려 들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다.

1. **첨부 내용**

* **작가 소개 - 야스미나 레자 (Yasmina Reza, 1959~)**

야스미나 레자는 반은 이란인, 반은 러시아인인 유대계 엔지니어와, 소련의 독재를 피해 온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사이에서 1959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범세계적이고 예술적인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파리 근교 낭테르에서 연극과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자크 르코크 국제연극학교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누보르망[[1]](#footnote-1)의 선구자인 나탈리 사로트의 영향으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매장 후의 대화 Conversations After A Burial>, <아트 Art>, <대학살의 신 God Of Carnage>, <겨울의 길 The Passage of Winter>, <스페인 연극 The Spanish Play>, <The Unexpected Man> 등의 작품이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대중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모두 환영을 받으며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아트 Art>는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와 토니 어워즈, 뉴욕 드라마 비평협회 최고 희곡상을 수상했으며, 1987년과 2009년에는 각각 <매장 후의 대화 Conversations After A Burial>와 <대학살의 신 God Of Carnage>으로 토니상을, 2005년에는 그녀의 전 작품에 대해 디벨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Life (x) 3>는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 희곡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그녀의 주된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인생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족, 그로 인한 고독의 문제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개인들의 소외와 고독을 이야기한다. 또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세월과 함께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도 변질되고 쇠락한다는 무상성을 이야기한다. 문체상의 특성으로 작가는 주로 구어체를 사용해 일상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며, 생략법을 사용한 대화는 여운을 남기고 때로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어 누보로망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

야스미나 레자는 희곡 외에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등을 쓰기도 하고, 작가 뿐만 아니라 배우, 연출가, 영화 감독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밤까지>, <내일 만나요> 등에서는 시나리오를 쓸 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참여하였으며, 2008년에는 자신이 쓴 희곡 ＜대학살의 신＞을 직접 연출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니콜라 사르코지와의 1년에 대한 회고록인 ≪새벽, 저녁 혹은 밤≫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프랑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에 걸쳐 번역되었다.

* **수상 경력**
* 1987 몰리에르상 최우수 작가상 (Molière Award for Best Author) – *<매장 후의 대화 (Conversations After a Burial)>*
* 1994 몰리에르상 최우수 작가상, 작품상, 프로덕션상 (Molière Award for Best Author, Best Play and Best Production) – *<아트 (Art)>*
* 1998 로렌스 올리비에상 최우수 코미디상 Laurence Olivier Award for Best Comedy – *<아트 (Art)>*
* 1998 토니상 최우수 연극상 Tony for Best Play – *<아트 (Art)>*
* 2000 [Grand Prix du Théâtre de l’Académie Française](https://en.wikipedia.org/wiki/Grand_prix_du_th%C3%A9%C3%A2tre_(Acad%C3%A9mie_fran%C3%A7aise))
* 2005 [Welt-Literaturpreis](https://en.wikipedia.org/wiki/Welt-Literaturpreis)
* 2009 로렌스 올리비에상 최우수 코미디상 Laurence Olivier Award for Best Comedy –*<대학살의 신 (The God of Carnage)>*
* 2009 토니상 최우수 연극상 Tony for Best Play – *<대학살의 신 (The God of Carnage)>*
* 2016 [Prix Renaudot](https://en.wikipedia.org/wiki/Prix_Renaudot), Babylone 외 다수
* **시놉시스**

11살의 두 소년 브뤼노와 페르디낭은 놀이터에서 싸움을 벌이고, 페르디낭에게 맞아 브뤼노의 이빨 두 개가 부러진다. 브뤼노의 부모 미셸과 베로니끄는, 페르디낭의 부모 알렝과 아네뜨를 집으로 초대해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의논하려 한다. 처음에는 교양과 매너로 가득했던 두 부부의 고상한 만남은 대화를 거듭할수록 유치찬란한 설전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삿대질, 물건 던지기, 욕지거리, 눈물이 뒤섞인 거친 육탄전으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 **언론 리뷰**

1. **해외 리뷰**

* 1등급 First Class – The New York Times
* 도시인들의 비매너에 관한 빈틈없고 유쾌하게 신랄한 코미디 신작

A savvy and deliciously caustic new comedy of urban ill-manner – Chicago Tribune

* <대학살의 신>보다 공연장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Evening in the theatre don’t get any funnier than ‘god of carnage’ – The Record

1. **국내 리뷰**

* 이렇게 논리적이고 익살스러운 싸움을 봤나. 이 싸움판의 언어는 매우 논리적이며 예측불허의 유머, 우스꽝스런 파격으로 관객을 집중시킨다. –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
* 객석을 뻥뻥 터트리면서도 중산층의 허위의식, 소통의 부재를 서늘하게 꼬집는 수작이다.

– 중앙일보 최민우 기자

* 진지함과 유쾌함을 넘나들며 극의 긴장감을 유지,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 스포츠 경향 박준범 기자
* 말꼬리 잡기 싸움을 보노라면 ‘난폭’ 보다는 ‘난장’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큭큭 거리며 웃느라 정신 없다. – 서울신문 조태성 기자
* 90분간의 불꽃 튀는 연기, 독설과 냉소의 짜릿함 – 공연예술 전문가 정재왈

1. \*누보로망: 누보 로망 (nouvwau roman 신소설) 은 프랑스에서 195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소설로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전통적인 소설 형식이나 관습을 부정한 실험적인 소설을 말한다. [↑](#footnote-ref-1)